

강진군 5월연휴 전국 6만7천명 방문

‘반값 여행’ 전년비 4만명 증가
지역 상권서 8억700만원 소비
식당·숙박 매진...생활인구 증대

강진군의 ‘반값 여행’이 흥행에 성공하며 5월 연휴기간 6만7,000명의 관광객이 강진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4만4,000명이 증가한 수치로, 이례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 반값 여행은 강진군을 찾은 관광객이 강진에서 소비한 비용의 50%를 강진군 지역 화폐인 강진군 사랑 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5월 가정의 달 연휴 기간까지 총 4만724팀이 반값 여행을 사전 신청했다. 강진을 방문한 신청자들이 강진 관내 1,453개 업소에서 58억7,000만원을 소비하고 27억원을 정산금으로 돌려 받았다. 정산금 13억2,000만원은 강진 관내 799개 업소에서 다시 소비됐다. 4개월만에 총 71억9,000만원이 강진에서 사용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관광객이 몰리며 소비도 늘었다. 5월 연휴기간 동안 반값 여행으로 강진 관내 식당, 카페, 상가, 시장 등지에서는 8억700만원 가량이 소비됐다.

지역 상인들은 “농번기철이지만 설 연휴 못 지않게 매출이 올랐다”고 입을 모은 모였다.

강진군 마량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A씨는 “장사한 지 17년이 넘었지만 4~5월에 이렇게 장사가 잘된 건 처음이다”며 “반값 여행 덕분에



강진군의 ‘반값 여행’이 흥행에 성공하며 5월 연휴기간 6만7,000명의 관광객이 강진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진군 제공

손님들이 많이 와서 한꺼번에 왕창 사가고, 택배 주문이 계속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에서 장사하는 상인 모두가 입을 모아 반값 여행 덕분에다며 행복해 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강진읍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반값 여행 시작 전에는 매출이 거의 없었는데, 시작하고 나서 매출이 대박 났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강진군은 관광객을 소비 생활인구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은 반값 여행을 단순 관광을 넘어 숙박, 식사, 체험 등을 지역 내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해 소비 중심의 체류형 생활인구를 만들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정자립도 8.5%에 불과한 강진군은 생활인구 확대가 곧 재정 확보 전략이기도 하다.

강진군은 반값 여행이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혜택 등을 보완해 7월 중 시즌 2를 재개할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관광객과 군민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반값 여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완판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반값 여행을 통해 소비·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승수효과를 입증하며 주목받고 있다. 생활인구 기반 보통교부세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장성군, 1학기 대학생 등록금 최대 200만원 지원

내달 13일까지 접수

장성군이 올해 1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21일 장성군에 따르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장성지역 대학생 1명당 학기별 최대 200만원, 누적 8학기까지 등록금 일부담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 등록금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보호자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2022년 5월 15일 이전 전임) 장성군에 주민등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C학점 이상 취득 △30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 국내 대학 재학생이다. 2025년도 1학

기분 국가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한 이력이 있어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기간은 오는 6월 13일까지다.

장성군은 지원 요건 확인 등 절차를 거쳐, 국가·교내장학금이 확정되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지역 대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복지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장성군 문화교육과 교육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전일용 기자



완도군이 최근 서울 엠베서더 풀만호텔에서 열린 2025 국가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부문의 대상을 수상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대상 수상

해양치유 등 콘텐츠 대내외 인정

완도군이 최근 서울 엠베서더 풀만호텔에서 열린 2025 국가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1일 완도군에 따르면 브랜드 대상은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지도, 호감도, 선호도 등을 평가한다.

완도군은 이번 수상으로 청정한 자연환경과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해양치유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완도군은 국내 최초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개관해 해수, 해조류, 머드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16가지의 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센터 누적 이용객 수는 7만4,000명이 넘었으며, 해양치유를 연계한 관광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치유와 휴양이 융합된 체류형 관광 모델로 자리 잡았다.

완도군은 올해를 ‘2025 완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365일 여행하기 좋은 완도’를 주제

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관광 정책과 이벤트 등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이달 초 막을 내린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와 장보고 수산물 축제에는 총 11만3,000여명이 다녀갔다. 완도해양치유센터도 축제 기간 인산인해를 이뤘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여행 경비 반값을 지원하는 ‘완도 치유 페이’가 인기를 끌며 숙박, 식당, 카페, 전복·해조류 판매점 등 상권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은 오는 6월에는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8월에는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 9월에는 장보고 한상 어워드 시상식 등 국가·국제 행사를 통해 완도의 가치를 알릴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해양치유는 우리 완도가 국내 최초로 추진한 만큼 해양치유와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해양치유 관광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완도=최규욱 기자

영암군, 청년월세 1년간 지원

영암군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은 19~49세의 1인 청년에게 매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1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민이고,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두 조건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월 소득 기준은 358만8,020원 이하다. 영암군은 심사를 거쳐 10명을 선발하고, 최종 지원자에게는 올해 1월 임차료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최복섭 기자

나주서 내일부터 ‘전남 공예페스타’

전남공예창작지원센터 3일간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공예주간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전남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2025 전남 공예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남 공예페스타는 공예인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다양한 공예 체험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 가능성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문화 예술 축제다. ‘손끝에서 태어나다’를 주제로 열리며, 개막식은 24일 오후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열린다.

축제장에서는 공예작가 14명이 나무, 섬유, 도자, 금속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한 실습형 공예 체험을 진행한다.

전남 공예인 29명이 참여하는 기획전시전 ‘연대, 공예&도구와 만남’도 열린다. 전시전은 ‘도구’를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공예의 철학·기능적 의미를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아동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인 ‘나는야 꼬마작가’는 에코백에 영산강 또는 십이지신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이 그린 작품은 6월 2일부터 7일까지 박물관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예페스타는 단순한 전시와 체험을 넘어 세대 간 공예문화의 전승과 창의적 감성의 확산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전남 공예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목포경찰,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목포경찰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소속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청소년 경찰학교는 청소년들에게 경찰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청소년 경찰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경찰 제복 및 장비 체험 △사격 시뮬레이션 체험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했다.

문병조 목포경찰서장은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동균 기자



함평군, 드림스타트 아동 자아성장캠프

함평군은 최근 제주도에서 드림스타트 참여 중료 초등학교 6학년 19명을 대상으로 자아성장캠프를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캠프는 에코랜드, 수목원 테마파크, 테마파크, 탐라문화원, 아쿠아플라넷 견학 등 다양한 현장 체험을 통해 아동의 사회성 향상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함평군은 특색 있는 캠프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해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인솔자로 공무원과 드림스타트 종사자를 배치해 아동의 안전 관리에도 힘을 쏟았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캠프를 통해 사회성과 창의력 증진, 자기 주도적 진로개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진도군-해양교통공단, 안전강화 업무협약

진도군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도서 지역 해양 교통안전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은 해양 교통의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기관별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 교통정보 실시간 데이터 제공 △도서 지역 주민 교통 편의성 제공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한 홍보 △모바일(진도군공공앱)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여객선 운항 정보와 위치 제공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도서 지역의 생활 편의 제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병호 기자